

신봉의 길은 지식의 길의 기념물이다.

마두반의 기슭에서 지금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오늘 이것은 여러 강들과 대양의 만남이다. 크고 작은 지식의 강들은 제각각 정화자 아버지처럼 정화자다. 아버지는 그의 봉사의 동반자들, 즉 이 나라와 외국에서 도착한 정화하는 강들을 보고 있다. 이 나라와 해외의 영혼들이 순수해져서 참으로 많은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노래들이 동시대에 그들의 입을 통해서 불리는 노래들이 될 것이다. 지금 아버지가 부르는 칭송의 노래는 고결한 너희 영혼들의 고결한 과제와 고결한 삶에 대한 노래들이다. 나중에 신봉의 길에서 이 노래들이 신앙의 노래들로 기억될 것이다. 지금 영혼인 너희들 모두 초감각적인 행복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음으로 춤추고 있다. 그 다음에 신봉의 길에서 너희는 발로 춤을 출 것이다. 지금 너희는 고귀한 영혼들의 미덕들로 엮인 염주의 구슬들을 돌리며 그들의 미덕들에 대해 얘기한다. 나중에 신봉의 길에서는 그들이 너희의 물리적인 염주의 구슬들을 돌릴 것이다. 지금 너희는 아버지에게 보그를 올리는데, 그 보답으로 신봉의 길에서는 사람들이 너희들 모두에게 보그를 바칠 것이다. 너희가 아버지에게 먼저 바치기 전에는 아무 것도 취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봉의 길에서 사람들은 먼저 너희 신인 영혼들에게 바치기 전에는 아무 것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현재 너희가 아버지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너희들 자신을 두듯이 그들은 신인들을 먼저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 자신을 둘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모방한다. 너희들은 기억의 화신이 되고 그들은 그 기념물로 기억의 화신들이 된다. 너희들 모두 섞인 것 없이 끊임없이 완전히 순수하다, 다시 말해 어느 누구도 너희를 흔들거나 부정적인 방식으로 너희를 변화시킬 수 없도록 한 분에 대한 기억에 변함없이 머물러 있다. 마찬가지로 열렬한 너희의 신봉자들, 너희의 참된 신봉자들, 너희의 첫 번째 신봉자들은 자기들의 특별한 신인인 너희에 대해서 지각에 굳건한 믿음을 가진다. 너희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으며 끊이지 않는다. 하누만의 신봉자들은 심지어 라마를 언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누만의 신봉자로 남을 것이며 그들의 믿음은 그 정도로 확고하다. 하나의 힘, 하나의 지원을 가지는 너희들의 방식을 그들은 그대로 흉내낸다.

너희들 모두가 영적인 순례자가 되는 것은 지금 이때다. 너희의 순례는 신을 기억하는 순례이며 그들의 순례는 너희를 기억하는 순례다. 지금 현재 너희들 모두 기억의 화신이 되는 고결한 말씀들과 가르침들을 읽고 기억의 화신이 되기 위해서 지식과 평화의 탐의 기둥들을 돌며 걷고 또 남들도 모두 그 둘레를 돌게 한다. 너희는 탐에 쓰인 가르침들을 읽으려고 걸어서 탐 주위를 돌고, 탐의 어느 한 면도 빼놓지 않는다. 탐의 4면을 다 돌고나면 너희는 모든 걸 다 보고 경험했다고 느낀다. 나중에 이를 기념하여 신봉자들은 신상인 너희들의 주위를 돈다. 그들은 신상들 주위를 한 바퀴 다 돌기 전에는 자기들의 숭배가 완전했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신봉의 길에서 그들은 너희의 모든 미묘한 행동과 미덕 하나하나를 물리적으로 모방한다. 밥다다가 신인 영혼인 너희 모두에게, 한 분에 대한 믿음을 한결같이 너희 지각에 확고히 지니라고 조언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지금 이때에 너희가 한 분을 변함없고 안정되게 기억하며 머물지 않는다면, 한 분에게만 집중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흔들림 없이 머물지 않는다면, 너희의 신봉자들은 지각에 너희들에 대해서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만일 너희들의 지각의 발이 여기저기 배회한다면 나중에 너희의 신봉자들의 발이 비틀대며 헤맬 것이다. 때때로 그들은 하나의 신상을, 다른 때는 다른 신상을 자기들의 신인이라고 여길 것이다. 오늘 그들은 라마의 신봉자였다가 내일이면 크리슈나의 신봉자가 될 것이다. 지금 너희가 한 분에게서 모든 성취를 다 경험하는 단계를 갖지 못한다면, 너희의 신봉자 영혼들은 뭔가를 성취하려고 이 신인에서 저 신인에게로 헤매며 다닐 것이다. 너희가 지금 고귀한 명예로부터 멀어진다면 나중에 너희의 신봉자들도 역시 괴로워하며 너희를 떠날 것이다. 지금 기억을 통해서 미묘한 경험들을 하지 못하고 제 자신의 약점 때문에 너희들은 성취가 부족하다고 불평하는데, 너희는 낙담에 대해서 또는 너희의 사랑 때문에 불만을 토로한다. 그러므로 너희의 신봉자들도 역시 끊임없이 불평할 것이다. 너희들 각자가 모든 불평에 대해서 아주 잘 알므로 바바는 그것들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자비로워지고 끊임없이 자비의 느낌을 가져라! 그러나 때때로 너희는 자비가 아닌, 교만이나 의심을 가진다. 너희의 신봉자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의심을 가진다는 것은 “이걸 내가 꼭 해야 하나? 이 일이 이렇게 될까? 이것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묻는다는 뜻이다. 이것에서도 역시 그들은 자비를 잊는다. 너희 자신과 남들에게 자비로워라. 너희는 제 자신에 대해서 그

리고 남들에 대해서 의심을 가진다. 의심이라는 너희의 병이 더 커지면 암 같이 된다. 초기 단계에 있는 이들의 암은 그래도 고칠 수 있지만, 말기 단계에 있는 이들의 암을 고치기는 어렵다. 그들은 살아 있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 여기서도 역시 그들은 완전히 무지한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다. 그들은 동일한 구호를 끊임없이 읊조림으로써 이를 표시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 그들은 “나는 이래”라고 하는 반면 남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항상 그래”라고 말한다.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너희가 아무리 애써도 그들은 여전히 똑같은 소리만 되된다. 암환자들도 잘 먹거나 마시는 듯이 보일지 모른다. 겉으로는 꽤 괜찮고 강해 보여도 속으로는 기운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의심이라는 질병을 가진 자들도 겉으로는 처신을 잘 할 것이다. 겉보기에는 아무 것도 부족함이 없는 듯하고 심지어는 불만이 없는 듯 보이기가까지 하겠지만, 그들의 행복과 힘의 성취는 아주 약할 것이다. 역시 이와 비슷한 교만이라는 질병도 있다. 자비로움을 나타내는 표시는 너희의 모든 말과 생각 하나하나에 바바 한 분 뿐이며 다른 누구도 없다는 것이다. 자비로운 그들은 어디를 보든 끊임없이 아버지만 보는 반면 교만을 가진 자들은 어디를 보든 오직 그들 자신만 볼 것이다! 교만을 가진 자들은 “나, 나”의 염주를 돌리는 반면, 자비심을 지닌 자들은 아버지의 염주를 돌리고 있을 것이다. “나”라는 그들의 의식은 아버지 안에 합쳐져 있을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잠겨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다. 이런 유형의 영혼은 아버지의 사랑에 합쳐져 있는 반면 다른 유형의 영혼은 “나”라는 의식에 잠겨 있다. 이해되느냐? 사이클 전체를 통틀어서 너희를 모방하는 자들이 있다. 너희의 신봉자들에게 너희는 신 마스터들이다. 황금시대와 은시대에 너희는 사람들의 아버지들인 반면 합류시대에는 너희가 밥다다의 이름과 과업을 드러내는 지원의 형상들이다. 고귀한 행동과 자기 변화를 통해서 너희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빛낼 수도 있고, 아니면 낭비적인 행위와 평범한 행동으로 아버지의 이름에 불명예를 끼칠 수도 있다. 그것은 자녀인 너희들의 손에 달렸다!

파멸의 때에 너희들은 온 세계 전체를 위한 위대한 시혜자들, 위대한 축복의 공여자, 대 기부자, 대단히 자비로운 영혼들의 모습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매 시대마다 참으로 고귀하다. 너희는 언제나 줄곧 지원의 형상이다. 너희들 각자 제 자신을 이것으로 느끼느냐? 너희들은 지각 속에 시간의 세 측면, 즉 시작, 중간, 끝에 대한 인식을 지니고 있다.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고, 뒤에 너희를 모방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너희가 행하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라.

시간의 세 측면 모두에 있어 위대한 자들에게, 힘의 화신이며 자비롭고 아버지를 기억하며 머무는 자들에게, 변함없이 매 초마다 성취의 화신이며 공여자인 자들에게, 아버지처럼 완전한 영혼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바바가 선생들 그룹을 만나심. 선생들의 실제 형태는 끊임없는 봉사자의 모습이다. 너희들 모두 이것을 아주 잘 안다. 봉사자의 특별함이 무엇이나? 어떻게 하면 봉사자가 성공하느냐? 끊임없이 봉사에 몰두해 지내는 봉사자의 특질은 자기가 봉사하고 있다거나 어떤 봉사를 마쳤다는 느낌을 이미 버렸다는 점이다. 다른 말로 너희는 이것을 “뭔가를 버렸다는 것을 버림”이라고 부른다. 너희가 “내가 이 봉사를 했다”라고 말할 때는 그 봉사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그 일을 하신 분은 바바이기 때문에 나는 도구가 되어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뿐이다.” 이렇게 되면 아버지에 대한 찬양이 있다. 너희가 봉사자라고 말하거나 너희가 뭔가를 했다고, 또는 뭔가를 할 것이라고 말할 때는 “나”라는 그 의식이, 봉사자라는 면에서 하는 말일지라도, 그 의식이 봉사가 성공하게 허락지 않을 것이다. 봉사에 “나”라는 의식이 섞이면 그럴 때는 봉사에 버림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봉사가 이기적인 동기로 가득 채워진다. 세상에는 봉사할 줄 아는 두 가지 유형의 영혼들이 있다. 봉사할 줄 아는 한 유형은 이기적인 동기로 봉사하는 자들이고 두 번째 유형은 사랑으로 버림의 화신인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떤 유형의 봉사자냐? 너희들의 “나”라는 의식이 바바에 대한 사랑에 합쳐졌을 때 그것이 바로 참된 봉사자라는 의미임을 이미 너희들에게 말해주었다. 그렇게 되면 “나”와 “당신”이라는 언어가 끝난다. 바바는 행위를 고취하고 있는 분이고, 너희는 그것을 행하고 있는 도구다. 누구든 도구가 될 수 있다. 너희가 “나”라는 의식을 가질 때는 그것이 무슨 뜻이나? 항상 “메! 메!”라고 우는 것이 누구냐? (염소입니다.) 끊임없이 “나”라고 울어대며 너희는 의존적이 된다. 염소의 머리와 어깨는 변함없이 숙여져 있는 반면 사자는 끊임없이 머리를 높이 치켜들고 있다. 이처럼 “나”에 대한 의식이 있는 데서는 너희가 이런저런 욕구로 인해 머리를 숙이고 있고, 머리를 높이 쳐들고 있는

도취감이 없다. 이런저런 장애로 인해 너희는 염소처럼 머리를 계속 숙이고 있다. 가정을 가진 자의 삶은 염소의 삶과 같은데 왜냐하면 끊임없이 머리를 숙여서 절하기 때문이다. 겸손해서 고개 숙여 절하는 것은 다른 얘기이며, 너희가 머리 숙여 절하도록 만드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마야가 너희를 염소로 만들기 때문이다. 마야는 너희가 머리 숙여 절하고 눈을 내리깔도록 강요한다. 봉사에서 “나”에 대한 의식을 쉬는 것은 의존적이 된다는 뜻이다. 그러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역할, 또는 분위기, 뭔가 다른 것에 의존할 것이다. 너희는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된다. 심지어 너희들 자신의 산스카르에 의존하게 되기까지 한다. 의존한다는 것은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남들에게 영향 받는 자들은 의존적이 된다. 봉사자들은 이 산스카르를 가질 수 없다.

봉사자들은 도전장을 던지는 자들이다. 너희가 도전할 때는 항상 머리를 높이 쳐든다. 실수했을 때는 너희가 말을 하면서도 시선을 아래로 떨구고 할 것이다. 봉사자가 된다는 것은 도전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다. 봉사자라는 것은 마야에게 도전하는 자이며 또 아버지께 관해 세상 전체에 도전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다. 먼저 자기들의 낡은 산스카르에 도전하고 난 자들이 그 다음엔 남들에게 도전할 수 있다. 처음에 너희는 특히 제 자신의 산스카르에 도전해야 하고 그러면 너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장애가 오든 그 모든 것에 도전할 수 있다. 장애들은 결코 참된 봉사자들을 멈추게 할 수 없다. 남들에게 도전하는 자들은 산과 같은 마야의 모습을 1초에 겨자씨의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 마야에 대해서 너희가 보여주는 드라마에서 너희들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너희가 산을 겨자씨로 변화시키리라는 것이다.

참된 봉사자라는 것은 아버지와 대등한 자들이라는 뜻이다. 아버지가 제일 먼저 그 자신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는, 나는 세계의 하인이다, 라 한다. 봉사자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와 같아진다는 뜻이다. 너희가 이번 한 생에 하는 봉사는 너희가 미래 여러 생 동안 왕관과 옥좌를 차지할 수 있게 해준다. 합류시대는 봉사하는 시대인데, 너희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해야 하느냐? 어떤 경우든 합류시대는 짧은 시대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시대에 봉사할 기회를 받는다 해도 단기간 동안뿐이다. 누군가 50~ 60년 동안 봉사해왔다 해도 5천 년에서 5, 60년을 빼면 사이클의 나머지 모든 기간은 보상의 때이며, 이 말은 즉 60년간 봉사하고 사이클의 나머지 전체 기간 동안 그것의 자양분을 즐긴다는 뜻이다. 합류시대에 하는 노력에 따라서 너희는 그만큼 가치 있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숭배받을 가치 있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너희는 등수대로 그만큼 숭배자가 된다. 너희는 일등의 숭배자들이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너희가 마지막 생 역시 얼마나 좋은지 좀 보라! 훌륭한 노력가인 너희들은 심지어 마지막 생 까지도 좋았으니, 이것에서 너희의 과거 생들은 얼마나 좋았을지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이제껏 경험해오던 행복에 비해 약간의 슬픔을 경험하는 것과도 같다. 예를 들어 아주 부유한 사람이 약간 가난해지면 너희는 그가 가난해졌다고 말할 것이다. 부유한 사람의 경우엔 체온이 단 1도만 더 높아져도 너희는 그가 열이 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의 체온은 거의 5도나 지나치게 높을 때도 묻는 자조차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 슬픔은 그리 크지 않은데, 너희들이 워낙 대단한 행복을 경험해왔기 때문에 지금 슬픔을 겪고 있다고 일컬어지는 것이다. 심지어 마지막 생에도 너희는 거지가 되지는 않았지 않은냐? 너희는 집집마다 문전을 찾아다니며 차파티 한 두 장을 구걸하는 자들이 되지는 않았다. 노력할 시간은 아주 짧은 반면에 그 보상을 경험하는 기간은 아주 길다는 것을 너희에게 거듭 일러온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보상은 참으로 드뭅다! 너희들이 이 의식을 가능한 한 오래 지니면 그럴 때 너희의 단계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이 고귀해질 것 아니냐? 봉사자라는 것은 사이클 내내 자양분 많은 결실을 먹을 권리를 차지한다는 뜻이다. 너희가 합류시대 전체 동안 늘 계속해서 봉사해야 하느냐는 말은 결코 묻지 마라. 너희가 자양분 많은 결실을 먹고 있을 때 그것을 사이클의 나머지 기간에도 먹게 될지 여부를 너희가 묻겠느냐? 너희가 그 모든 보상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은 지금 이때다. 너희는 하나에 대한 보답으로 십만 배를 받으며 따라서 정확한 계산내역이 있을 것이다. 봉사자가 되는 것은 전체 사이클 내내 끊임없이 행복해진다는 뜻이다. 이것은 작은 행운이 아니다! 너희 스스로를 선생이라 부르든 봉사자라 부르든, 너희는 봉사하는 데 대한 보답으로 10만 곱절을 받는다. 너희가 하는 노력이 무엇이나? 여기서 너희들은 학생들에게 디디나 다디가 된다. 최소한 너희는 칭호를 부여받는다! 10년 된 학생도 2년밖에 안 된 새로운 선생에게 역시 “디디”라고 부를 것이다. 여기서도 너희가 고결한 단계에 있는 것이 보인다. 그들 모두 너희에게 존경을 표한다. 만일 너희가 참된 봉사자라면 지금 이때부터도 이미 존경받을 가치

가 있게 된다. 만일 너희 마음속에 뭔가 다른 것이 섞여 있는 경우엔 너희가 비록 “디디”나 “다디”라 불릴지 몰라도 내일이면 그들이 너희에게 뭔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이다. 봉사에 뭔가 뒤섞여 있으면 너희에게 주어지는 존경에도 역시 뭔가 섞일 것이다. 이런 이유로 봉사자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와 대등해진다는 의미다. 봉사자라 함은 너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아버지의 발자국보다 조금 더 앞도 아니고 조금 더 뒤도 아닌, 정확하게 그의 발자국에 포개지도록 내딛는다는 뜻이다. 발걸음 하나하나를 아버지의 슈리마트에 따라서, 그것이 생각, 말, 행위, 또는 연결과 관계 중 무엇이든지, 그렇게 내딛는 것, 즉 아버지 발자국의 정확한 위치에 발을 내딛는 자들 중 하나가 된다는 것이 곧 바바의 발자국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다. 어찌 생각하느냐? 너희는 그런 그룹이지? 너희 선생들은 한결같이 쉬운 요기들이 아니냐? 만일 선생인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어려운 일이라고 여긴다면 너희의 학생들의 상태는 어찌 되겠느냐? 앗차.

축 복: 마침표를 찍음으로써 고귀한 단계의 훈장을 얻는 마하비르가 되어라.

영원한 이 드라마에서는 이 영적인 군대에 속하는 너희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훈장을 주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드라마에 따라서 너희는 고결한 단계의 훈장을 자동적으로 받는다. 모든 영혼 각자의 배역을 초연한 관찰자로서 지켜보며 마침표를 쉽게 찍을 수 있는 자들만이 훈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영혼들의 기초는 그들의 경험에 토대를 둔다. 이런 이유로 그 어떠한 문제의 벽도 그들을 가로막을 수 없다.

슬로건: 날아다니는 새가 되어서 너희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역경의 산을 날아서 넘어가라.

*** 음 샐티 O M S H A N T I ***